

尹,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 등 지원 방안 강구”

부산서 민생토론회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특별법 제정”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열어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말했다.

또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출산장려금을 과격적으로 지급한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35%(1억5000만원 이하), 38%(1억5000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두고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 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부산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같은

해 11월 대선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비수도권 지역 첫 민생토론회를 부산에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히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인제, 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며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 단지, 오페라 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한 1단계 국제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로 국제행사, 금융 비즈니스, R&D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서도록 개발해나갈 것”이라며 “부산시민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과 선 굿는 민주...박홍근 “창당해도 선거 연대 안해”

“진보개혁 승리 위해 자중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진보 성향 군소 야당 및 시민단체와 비례대표 선거에 대비해 통합비례정당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주도하는 박홍근 의원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은 연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 단장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설행 (조 전 장관의)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을 급속도로 퇴행시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공정과 상식, 정의와 희망’을 바로 세우고 큰 위기에 처한 민생과 민주, 평화를 살려내려는 국민의 염원과 명령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그 절실함에 동의하는 정당과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치고, 중도층을 포함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절제절명의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창당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야기할 것”이라며 “과도한 수사로 역울함이 있어도 진보개혁세력 승리를 위해 자중해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런 입장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과 통합비례정당의 형태로 손잡

은 중도층이 이탈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조 전 장관이 등장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총선 판에 소환되면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희석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의 출마 여부를 두고 “총선 전에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가 이뤄지지 않는 한 출마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출마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당을 만들고서 함께하는 동지나 벗들과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준석 “선명한 야당으로 대안세력 되겠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는 13일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 우뚝 서서 대안 세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대 통합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여권을 향해서는 “일방통 사정 권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다지는 것에만 몰두해 온

정부를 상대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그러면서 “평범한 시민들에게 검찰과의 일전을 강요하는 제1야당과 달리 논쟁적이지만 꼭 필요한 문제들을 개혁신당이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제3차대 통합과 관련해선 “소통 절차의 미흡으로 통합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낀 당원과 지지자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와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신당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공유하고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 새로운 선택에서 새롭게 합류한 구성원들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잘 엮어내겠다”며 “당의 가치와 지향은 당명에서 잘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국민 1만명 전화조사

국민연금 개혁 입장 여론 수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2주간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연금 개혁 입장을 묻는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1만명 기초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조사에서는 임의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과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에 대해 학습하게 한 뒤 다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향후 시민대표단이 속의할 복수의 연

금개혁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의제숙의단’도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대표 등으로 구성해 다음 달 중순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오는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

공론화위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4·10 총선 이후 연금특위에 제출하면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연금개혁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첨가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1997 테린인더스트리㈜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기업부 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적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 앞 위치